

고창군, 귀농·귀촌 1번지... 정착금·멘토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전라북도 고창군이 귀농귀촌의 1번지로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고창군은 제8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을 6년 연속 수상했다.



고창군 제공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도 고창군은 인구 6만명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귀농귀촌을 꾀꾸는 이들을 끌어 모으는 정책이다. 지난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682가구, 2476명이 귀농귀촌해 정착했다. 2007년 이후 총 9307가구, 1만3923명이 고창군에서 살고 있다.

고창군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태계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뿐 아니라 복분자와 수박, 멜론, 고추, 풍천장어 등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농특산물도 풍부해 영농 정착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

고창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이 주효했다. 귀농귀촌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창군은 귀농인 영농정착금을 비롯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할 뿐 아니라, 귀농귀촌학교, 마을환경회, 귀농귀촌 멘토 지원 등의 정책도 펴고 있다.

우고운 조선비즈 기자

당신의 마음에 녹색심포... '힐링 관광도시' 6년 연속 대상



충북 단양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1번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단양군 제공

단양군은 '2018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6년 연속 힐링(heal-being) 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 단양군은 경영혁신과 창의적 정책을 통해 1000만 관광객을 달성하고 체류형 관광도시의 기반을 구축한 점 등이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양군의 도시 브랜드인 '대한민국 녹색심포 단양'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편안한 휴식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2008년부터 사용했다. 중

부내륙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한 단양은 소백과 태백이 갈라지는 곳으로 옛날부터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단양팔경'으로 유명했다.

대표 관광지인 단양팔경은 지난 2013년부터 3회 연속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팔경 중 하나인 도담삼봉은 한국관광공사와 SK텔레콤이 주관한 '타임(T map) 빅데이터로 본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름과 겨울철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도담삼봉은 또 충청북도가 지난해 주요 관광지 132 곳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가장 많은 306만9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장한 단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잔도, 수양개 빛 터널도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단양을 방문한 관광객은 내국인 1007만9109명, 외국인 3만9055명 등 총 1011만8074명에 이른다.

이진혁 조선비즈 기자

할머니·할아버지 작가 준비한 '인문학 도시'



경북 칠곡군은 평생학습의 도시이자, 인문학의 도시다. 사랑과 삶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칠곡군은 지난 2013년부터 인문학 도시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칠곡군 제공

이번에 '인문학 도시 칠곡'이라는 브랜드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상을 받게 됐다. 칠곡군은 '칠곡 인문학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한다. 25개 마을을 조합으로 두고 있으며, 마을 운영은 사업방향이 맞는다. 마을 기자도 두고 있는데,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해 인문학 마을 잡지를 만든다.

또 102명의 마을 강사는 이웃이 스승이 되는 인문학 마을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최근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매년 30여개의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칠곡군을 찾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령군과 인문학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칠곡 인문학 마을 리더들이 직접 고령 인문학 마을 리더 교육을 시작해 고령군에도 10개의 인문학 마을이 만들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칠곡군은 2004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이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칠곡 평생학습 대학'을 만들어 550명의 주민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읍면 평생학습 복지센터, 찾아가는 현장교육, 사부작학교 운영 등으로 칠곡군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백예리 조선비즈 기자

'I·SEOUL·U' 탄생 3주년... 대표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



올해 3주년을 맞은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 'I·SEOUL·U'가 '2018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핵심가치인 공존, 열정, 여유를 담은 브랜드인 'I·SEOUL·U(아이서울유)'는 그동안 관 주도, 전문가 위주의 브랜드에서 탈피, 시민 20여만명의 투표를 거쳐 만들어졌다. 지난 2015년 10월 서울의 새 브랜드로 선포되고 나서 2015년 5월 '서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서 서울의 공식 상징물(브랜드)로 정식 출범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브랜드 탄생 2주

년을 기념해 마포문화비축기지와 신청사 등에서 '아이서울유 2주년 시민축제'와 '서울 도시브랜드 포럼'을 개최했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국내외에서 호응을 얻었다.

또 서울 브랜드 아이서울유는 2016년 독일 레드닷 어워드, 지난해 if 어워드, 미국 굿디자인(GD)상 등 세계적인 브랜

드, 디자인 상을 받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브랜드가 됐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과 함께 키워가고 있는 서울 브랜드가 올해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서울의 정체성과 문화를 알리는 대표 도시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홍보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수혁 조선비즈 기자

밤낮 아름다운 풍경... 3년 연속 1300만 관광객 방문



전남 여수시가 올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선정됐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3년 연속 1300만 관광객 방문도시로 '2018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여수는 한반도의 남해안 중간에 위치해 사계절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를 지닌 '힐링'의 도시다. 관광지 날리 알려진 오동도와 향일암 외에도 거문도, 백도, 금오도, 상·하화도, 개도, 낭도, 손죽도 등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섬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해상케이블카와 해양테일바이크, 스카

이플라이, 유람선, 스카이투어 등 '육해공 투어도' 가능하다. 요트, 카약,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익스트림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 중이다.

여수는 먹을거리도 풍부하다. 갯김치, 계장백반, 장어구이, 한정식이 특히 유명하다. 봄에는 서대회, 여름에는 갯장어 사부사부, 가을에는 갈치와 전어, 겨울에는 새조개와 굴구이 등 사시사철 먹을거리가 넘친다.

여수밤바다는 여수만의 은은한 야경을 자랑한다. 감미로운 거리공연도 펼쳐진다. 4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금·토·일 저녁에 해양공원 등에서 펼쳐진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는 국내의 유명 뮤지션 20개팀이 참여하는 '여수 국제버스킹 페스티벌'도 여수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군다.

심민관 조선비즈 기자

대한민국 최북단 청정지역서 200개 농특산물 생산



경기도 연천군의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남도복수(南土北水)'가 '2018년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연천군 제공

대한민국 최북단 청정지역 연천군은 엄격한 심의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에 '남도복수'라는 통합상표를 인증해 관리하고 있다. 남도복수는 남쪽의 비옥한 토지와 북쪽의 깨끗한 물에서 정성으로 생산된 청정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뜻한다.

연천군수가 인증하는 남도복수는 곡류와 과실류, 과채류, 엽채류 등을 포함

한다. 200여개 품목이 생산·유통돼 탁월한 맛과 영양을 제공한다. 대표 작물로 사과, 울무, 인삼, 콩 등이 있다. 특히 연천 울무는 전국 울무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연천을 대표하는 품목이다. 연천군 울무의 효능과 장점에 대해

서도 여러 매체와 기관이 주목하고 있다. 연천군은 2003년 11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5년째 남도복수를 관리해 오고 있다. 2009년 7월부터는 남도복수 연천장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남도복수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1년 단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남도복수 브랜드의 품질과 위생을 꾸준히 관리해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남도복수를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지혁 조선비즈 기자

세교신도시 도보 10초 역세권! 호텔처럼 누비며 사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수익형부동산
호텔을 품다!

청소 대행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세탁 대행 서비스

생활 보조 서비스

자하철역
도보 10초

10년
임대보장

더블복층
완성
(2017.12.31)

이 모든 호텔식 서비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안 두드림 오산대역

집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다

총 504실 (25㎡~79㎡) 근린생활시설 동시분양!

분양문의

1877-5566

모텔하우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4-2(비정주 주민센터 바로 옆)

사행사 대도산업건설
사행사 대우산업개발(주)
신박사 문공혁신빌